

페루 - 볼리비아 접경 푸노(Puno) 지역 아이마라(Aymara)원주민 종족갈등의 원인*

차 경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안데스 산맥지역은 다양한 원주민종족 집단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종족 중에서 아이마라족은 케추아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원주민 집단을 구성한다. 특히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각각 국가의 소속을 달리하지만 하나의 삶의 터전 속에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공통의 정체성을 추구해 왔다. 그동안 아이마라 원주민은 종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동일종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접경지역의 중심지인 푸노(Puno)주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의 종족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독립이후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형성된 인위적인 영토 경계선으로 분리된 이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협조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최근 들어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종족이 서로 다른 국가의 틀에 묶이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족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문화와 역사적 특수성을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강조하며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며 단결하지만, 내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서로가 문화적 전통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가하며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종족간의 갈등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타 종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으나 페루와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의 경우 양국이 접경을 유지하고 있는 푸노주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종족의 유대감이 현실의 조건에 의해 갈등구조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갈등의 심화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아이마라 원주민, 접경지역, 역사적 특수성, 종족정체성, 종족갈등

1. 들어가는 말

페루와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안데스 산맥지역은 다양한 종족의 원주민 집단이 밀집되어 있으며, 케추아족(Quechua)과 아이마라(Aymara)족은 이러한 원주민 종족집단 중 가장 중요한 인구를 구성한다. 특히 아이마라 원주민은 해발 3600미터 세계 최고 고지에 위치한 티티카카(Titicaca)호수를 둘러싸고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1936년 양국의 국경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들은 동일 언어사용을 바탕으로 종족으로서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국가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형성된 이후에도 접경지역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권 속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계 도처의 접경지역은 공동의 문화공간위에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에 걸쳐 밀집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 역시 각각 국가의 소속을 달리하지만 하나의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접경지역 페루의 푸노(Puno)주가 아이마라 원주민

1) 김승렬 외,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 역사재단, 2008, p.102

분쟁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독립이후 국경선 형성과정에서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은 동일한 역사적 유산을 놓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외교적 분쟁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라 원주민은 언어를 바탕으로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은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고유한 종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종족정체성을 강화시켜 나아갔다. 이들은 문화와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외부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며 단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종족내부의 갈등과 대립관계 역시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04년 페루 푸노 주 코야오(Collao)지방에서 시장 웨르난도 시릴로(Fernando Cirilo)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 또한 최근 들어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 마을은 집단 간 경계를 만들고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종족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주위의 원주민 집단과 문화와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푸노 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내부적으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종족간의 갈등은 대개의 경우 같은 지역을 공유한 여러 민족이나 서로 다른 종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원주민 공동체 지역이 국경과 인접한 경우 또한 원주민들이 국경을 인접한 양국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족통일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칫 국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야기되었다. 그러나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단결하는 동시에 동일한 종족이 서로 다른 국가의 틀에 묶이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족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지역 푸노 주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갈등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http://elcomercio.pe/peru/puno/asesinos-alcalde...>

II. 아이마라 원주민 분포 현황

〈그림 1〉 아이마라 원주민 분포지역



출처 : cnfcjdhttps://www.google.co.kr/search?q=mapa+...KbDm8kCFYXGpgod4U
MMhw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국가 중 페루와 볼리비아는 전체인구대비 가장 많은 원주민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이다. 페루의 원주민 인구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원주민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볼리비아는 그 뒤를 이어 12%의 원주민이 분포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종족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마다 또한 종족집단의 수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흔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에는 400여 종족의 원주민 집단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안데스 산맥지역은 다양한 원주민 종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아이마라족은 케추아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원주민 종족집단을 구성한다. 특히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은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3) Hopenhayan y Bello, *Discriminación Etnico-Racial y Xenofobia en América Latina y Caribe. Serie Políticas y Social*, No 47,(Santiago: CEPAL, 2005), p.5.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원주민 분포율

국가	언어	전체 원주민 인구대비 종족별 분포율(%)
멕시코	나우아틀(Nahuatl)	23
	마야(Maya)	14
	믹스테코(Mixteco)	7
과테말라	키체(Quiché)	15
	각치켈(Cakchiquiel)	10
	맘(Mam)마야(Maya)	8
페루	케추아(Quechua)	30
	아이마라(Aymara)	22
볼리비아	케추아(Quechua)	39
	아이마라(Aymara)	24
	과라니(Guaraní)	1

출처: Pascharopoulos & Patrinos(1996):32-35; 김기현(2005):94재인용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나라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므로 원주민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경우 원주민은 인종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계급의 의미를 보다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놓고 볼 때 모든 농민이 원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을 사회적 계급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원주민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원주민은 공동의 지리적 기원, 언어, 종교, 관습 및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공동체 밖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경우 언어로 원주민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보편적으로 언어는 원주민의 정체성 규정에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 언어와 함께 오늘날 원주민 규정은 자신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규정하는 자기 판단이 활용되고 있다.⁴⁾

안데스 산맥지역은 스페인 정복이전 부터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사회가 성장하였다. 알티플라노(Altiplano) 남쪽에는 비스카차니

4) 김기현,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 2005, pp.3-36.

(Viscachani), 왕카라니(Wankarani), 치리파(Chiripa) 그리고 북쪽지역에는 차빈(Chavín), 나스카(Nazca), 모체(Moche), 와리(Wari) 같은 고대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원주민 문화는 잉카문명 형성의 모체가 되었다. 고대인들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성과 공존이라는 상호성에 기초하여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체계를 구축하였다.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지대에서 저지대 군도 및 평원 그리고 해안까지 원주민의 분포는 확산되었다.

원주민은 안데스 산맥 지역 다양한 국가에 걸쳐 정착하였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티티카카호수에 인접한 알티플라노 사이에 고대도시 티아우아나코(Tiahuanaco)문명을 형성하였다. 티아우아나코 문명은 현재 볼리비아의 라파스(La Paz)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아이마라인들은 타완틴수요(Tawantinsuyo)와 티와나쿠(Tiwanaku)라는 중앙 행정체계를 통해 영토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틴수요(Antisuyo), 쿤티수요(Kuntisuyo), 친차수요(Chinchasuyo)와 구야수요(Cullasuyo)등 4개의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각 연방은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통치되었다.⁶⁾

타완틴수요는 잉카(Inka)와 경쟁관계를 형성했으며 콜롬비아 남쪽,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북서쪽 그리고 칠레의 중앙지역까지 연방을 형성하였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체계적인 사회조직을 정비하였고 토지와 사회관계에 기초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원주민의 행정체계는 아이유스(ayllus), 마르카스(markas) 수유스(suyus)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영토를 통제하며 아이마라 원주민은 다양한 공간을 관할하였다.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이유스는 타완틴수요의 기본적인 행정조직이다. 각 아이유스는 가족과 공동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재생산 및 자급자족 경제 활동에 토대가 되었다.⁷⁾ 아이유스는 원주민 공동소유 토지로서 가족과 혈연관계에 기초한 집단노동을 통해 운영되었다. 티티카카호수의 코파카바나

5) Dick Edgar Grassó, *América en la Prehistoria Mundial*, (BPR Publisher.1982), p.48.

6) Amy Elsenberg, *Aymara Indian Perspectives en Development in the Ande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3. pp.16-19.

7) Claudia Zapata Silva et., al, *Intelectuales Indígenas, Piensan América Latina*, Universidad Andina, 2007, pp.313-326.

(Copacabana)섬에는 식민시대 이전 이미 42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다.⁸⁾

식민시대 아이마라의 영토는 페루 리마 부왕령(Virreinato)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차르카스 아우덴시아(Audencia de Charcas)가 관할하였다. 현재 볼리비아로 확산된 아이마라 원주민은 혼인정책을 통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조직을 정비하였다. 알티플라노 지역은 양모를 중심으로 상업이 성장하였고, 그 결과 식민 행정체제는 재편되었다. 1776년 라 플라타 강(Rio de La Plata)지역에 새로운 부왕령이 형성되었으며⁹⁾ 이를 계기로 차르카스 아우디엔시아는 라 플라타 부왕령에 편입되었다.¹⁰⁾ 아우덴시아 북동쪽에는 이미 케추아족이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아우덴시아 내부는 아이마라족 단일 원주민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1780-1782년 페루 부왕령 차르카스 아우디엔시아에서 투팍 아마루(Túpac Amaru) 원주민 혁명이 시작되었다. 케추아족은 주도적으로 식민체제에 저항했으며 뒤를 이어 아이마라족이 적극적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케추아와 아이마라 원주민 지도자 사이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의 상황에서 경쟁 대신 피 정복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단결하였다. 당시 식민체제에 대한 케추아와 아이마라 원주민의 저항은 차르카스 아우덴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양 종족 단결의 유일한 역사로

8) Maria Tovar Rostworowski, *La Historia de los Incas*, Editora El Comercio S.A. Producciones Cantabria S.A.C, 2010, pp.7-25.

9) Francoise Morin. Roberto Santana, *Lo Transnacional: Instrumento y Desafío para los Pueblos Indígenas*, Abya-Yala, 2003, pp.187-89.

10) 스페인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영토는 부왕령(Virreinato)을 중심으로 행정체제가 정비되었다. 비레이나토는 식민영토의 통치영역을 분리한 것으로서 하부구조로 11개의 아우디엔시아(Audiencia)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중심으로 카피타니아(Capitania)가 형성되어 아우디엔시아로부터 분리되었다. 16세기 말 식민영토는 멕시코를 수도로 한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와 리마를 수도로 한 페루(Perú)부왕령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와 라 플라타(La Plata)부왕령이 형성되어 18세기 라틴아메리카 식민영토는 4개의 부왕령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Javier Agulier Rojas, *Fundación de Ciudades Hispanoamericanas*, (Madrid: Mapfre, 1994), pp.335-339; 차경미, 「라틴아메리카의 지방사: 아바나(Habana)와 카르타헤나(Cartagena)식민도시의 기능」, 『건지인문학』, 제1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p.273.

기록되고 있다.¹¹⁾

19세기 독립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새로운 단일 국가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탈 중앙집권화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지역 엘리트들의 분열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로 분리되었다. 또한 엘리트간의 갈등과 전쟁은 국경형성 혹은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²⁾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페루와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원주민은 서로 다른 국적 아래 양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양국의 국경선은 오랜 갈등과 변경을 통해 공고화 되었다. 1836년 페루와 볼리비아연방이 형성되었고, 이후 1841년 페루의 가마라 메시아(Agustin Gamarra Messia: 1829~1833; 1839~1841)군사정권은 아이마라 원주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879-1882년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이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아이마라 원주민 영토의 일부는 칠레로 병합되었다. 페루 영토인 모케가(Moquegua)지역은 분리되어 페루는 북쪽의 타나(Tacna)를 관할하게 되었고, 남쪽의 아리카(Arica)는 칠레 영토로 편입되었다. 당시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원주민이 밀집되어 있던 아타카마(Atacama) 지역은 이미 칠레의 자본과 주민에 의해 통제되었다. 20세기 접어들어 칠레 군사정권의 주도로 1939년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국경선이 확정되었다.¹³⁾

이를 계기로 볼리비아는 해안영토를 완전히 상실하여 남미지역 유일의 내륙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칠레는 전쟁배상으로 볼리비아 영토에 철도를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적 결과물인 인위적 경계선을 통해 아이마라 원주민의 영토는 분리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은 공동의 언어를 바탕으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아이마라 원주민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대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마라 원주민은 식민체제와 새로운 공화국

11) Xavier Albó, *Pueblos Indígenas en la Política*, Bolivia: CIPCA, 2002, p.113.

12) 차경미, 「그란 콜롬비아지역의 국경과 영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국경선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코기토』,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308.

13) Xavier Albó, 앞의책

건설과정에서도 단일 언어를 토대로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존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식민의 경험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과 문화는 혼종적 특징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이마라 원주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역시 이러한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 원형은 아니더라도 원주민의 전통적인 가치는 여전히 종족을 상징하는 생활방식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주민 문화의 혼종성 여부보다는 혼종성 내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종족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알티플라노와 푸노 지역 아이마라인의 문화와 관습은 혼종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운영 및 통제 그리고 상품유통 등 경제 활동에서 여전히 전통적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혈연 중심의 아이유 공동체에 대한 공간 개념 역시 아이마라 원주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으로 당연히 혼종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아이마라 원주민이 언어와 혈연관계를 토대로 사회조직과 종족의 유대를 지켜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이마라 종족의 특수성 내에서도 특히 접경지역의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은 잉카제국에 항복하지 않았던 유일한 종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지도자는 결혼하지 않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종족의 상징으로서 페드로 빌카파사(Pedro Vilcapaza)와 투팍 카타리(Túpac Katari)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조형물로 제작하여 저항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재생산하고 있다.¹⁴⁾ 역사적으로 투팍 아마루 혁명시기 아이마라 원주민 지도자들은 잉카의 카시케 통가수카(Tungasuca)보다 더 급진적이었으며 알티플라노지역에서 식민체제에 저항하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한 종족이었다. 또한 아이마라 원주민은 식민체제아래 집단적 저항을 통해 아시엔다에 종속된 다른 원주민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¹⁵⁾ 19세기 식민체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푸노 지역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원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

14) Borja Jiménez, *Mascara Peruana*, Fundación del Banco Continental para Fomento de la Educación y la Cultura, 1996, p.126.

15) Vera Eland, "Puno: Atmara Antimineros: Enseñanzas de Un Conflicto," 2011 de 30 de mayo, <http://servindi.org/actualidad/45679>

영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산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다. 페루의 역사학자들은 푸노 지역의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보다는 전통적인 원주민 경제 운영방식에 가깝고, 원주민은 항상 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통해 생존하였다고 주장한다. 볼리비아의 푸카라니(Pucarani), 코파카바나, 데사과테로(Desaguadero)지역과 페루의 모케과(Moquegua), 세피타(Zepita), 야베(Ilave) 그리고 푸노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는 전통적인 아이유 체제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¹⁶⁾ 식민시대와 공화국건설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의 영토는 재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의 아이마라 원주민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문화와 사회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Ⅲ. 원주민의 종족의 정체성

인종이 생물학적인 특성을 강조한데 비해 종족은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¹⁷⁾ 최근 들어 종족성은 자원이나 정치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16) <http://historiadorbolrfq.blogspot.kr/2011/05/conflictos-sociales-en-la-frontera.html>

17) 사전적 의미로 종족(ethnic group)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인류의 집단은 피부의 색깔, 두발의 모양이나 색깔, 기타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에 의하여 나뉘며, 동시에 언어·풍속·습관 등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도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당초부터 인류의 집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흑인의 검은 피부, 북구인의 밝은 피부색과 같이, 모두 다 거주지의 환경에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보이며, 동시에 문화적 특징, 예컨대 식량의 획득기술이나 주거 등은 역시 거주지의 환경에 적응하여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민족이 생겼다. 인종적인 특징은 오로지 집단 성원간의 혼인에 의해 유전하고, 통혼의 범위가 인종의 경계를 나타낸다. 한편 문화는, 예를 들어 여러 기술이, 통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집단으로 전파하는 것과 같이, 민족의 분포는 반드시 인종의 통혼권(通婚圈)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종도 민족도 그 발생은 집단의 격리에 힘입고 있으므로 본래 인류의 집단은 인종적 집단임과 동시에 민족적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리스 시대에 사용한 에트노스(ethnos)라는 말은 이와 같은 신체적 특징과 동시에 풍속·습관마저도 포함시킨 인류의 집단을 구별하는 단위였다.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557&cid=40942&categoryId=31611>

자신의 배타적인 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적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족의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인간의 심리구성과 관련된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족의 정체성은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은 특정개인으로부터 집단에 이르기 까지 삶의 의미와 그 가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타 집단과의 관계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타 주체와 상호작용에서 자신과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분명할 때 자신만의 문화는 형성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차별성과 특수성은 확인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타 주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국가를 포함한 집단의 이해관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¹⁸⁾ 아이마라 종족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타 종족과의 차별성과 함께 시간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케추아 원주민과의 세력 갈등관계에서 정체성은 강화되었다.¹⁹⁾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경우 타 종족과의 갈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고도로 수직화 된 피라미드 사회구조 속에서 소수자인 원주민은 서로 거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일부 아이마라 원주민의 경우 이미 사회와 소통하며 도시인으로 변모했다 해도 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분류함에 따라 도시화된 아이마라인은 자기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이마라 원주민의 집단적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보다 우선순위에 놓인다.

또한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체성은 종족 내부의 상호관계에서도 형성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은 칠레 아이마라 원주민의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칠레 아리카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과 자신을 동일한 종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 형성

18) Fernández Droguett, "Etnicidad Y Ciudadanía Indígena, Las Formas de Acción Colectiva Aymara en Argentina, Bolivia, Chile y Perú", *Si Somos Americanos: Revista de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IX, No. 2, Chile: Universidad Arturo Prat, 2009, p. 35

19) Francesco Pellizzi, "Misioneros y Cargos", *América Indígena*, No 1. III. Vol XIII, México: 1982, p. 14

과정에서 원주민은 국가정체성 확립에 동원되었다. 국경을 통해 분리된 아이마라 원주민은 각 정부의 교육과정을 통해 백인 엘리트규범에 동화되어갔다. 공식문화 속에서 원주민문화는 구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체성은 약화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칠레 원주민은 자신을 문명인이라고 인식하며 사회적 공간의 계급화를 통해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과의 거리를 유지하였다²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은 자신의 전통으로부터 단절되어 종족과의 유대감을 상실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거부당하는 이중적 입장에 직면했다.

스페인의 300년 식민통치는 상호 대립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1532년 이후 “열등한 인디오”는 반-봉건(Semi-Federal)노예주의 아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최하위 계급에 배치되었다. 식민권력은 영토 확장과 함께 가톨릭 교황청의 지원으로 2만년 동안 진화해온 안데스산맥 원주민 문명을 우상숭배로 재편하며 파괴하였다. 그러나 아이마라 원주민은 식민적 상황 아래 정복자의 종교를 외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통 종교의 맥을 이어가며 자신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확립해 나아갔다. 그 결과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와이뇨스(Wayños), 라 윌란차(la Wilancha), 파차암페스(Pachallampes), 차타스(Challtas), 투루카야스(Trukayas), 푸아스 데 코카(P'uas de Coca)와 같은 전통종교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일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²¹⁾

식민과 공화국 건설의 경험을 통해 원주민 문화는 변형되거나 일부 기능화되었다. 또한 원주민의 역사는 부분적이거나 단절되었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이르기 까지 광활한 영토에 분포되어 있던 아이마라 원주민은 20세기 초 각 국의 새로운 문화정책에 동원되었고 그 권위와 조직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 언어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해왔다.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타 집단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듯이 아이마라 원주민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같은 공간의 케추아족과

20) Clara Zapata T, *Las Voces del Desierto: Identidad Aymara en el Norte de Chile*, Chile: Dirección de Bibliotecas Archivos y Museos, 2001, pp. 138-140

21) Nathan Wachtel, *Comentario a Torero*, Revista Andina, No10, Cuzco:1987, pp. 392-394

의 경쟁관계 그리고 지도자 투파 카타리의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독립이후 공화국 건설과정에서 볼리비아는 페루의 지역엘리트간의 갈등을 통해 분리 독립하였으며 이러한 역사는 양국 아이마라 원주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이마라 사회에서 언어는 종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사용은 종족의 근원적 유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서적 유대감은 강하게 표출된다. 학자들이 언어와 종족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언어가 문화적으로 종족의 근거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언어 구사력 상실은 역시 정체성의 상실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원주민 언어는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민지배 이후 공용어로 자리잡은 스페인어는 독립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지역 공용어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언어는 국가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공용어 정책 속에서 원주민 언어는 그 역할도 변화하였다.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원주민은 티티카카호수 남쪽 라 파스와 오루로(Oruro)주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아이마라어 사용자는 1백60만 명에 이른다. 페루의 경우 푸노를 포함하여 아이마라 원주민은 타나, 모케과와 아레키파 지역에 거주한다. 2000년대 초반 통계자료에 의하면 원주민 언어 사용자는 대략 30만 명~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칠레에는 국경지역 아리카, 이키케 그리고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언어 사용자는 4만 8천명에 이른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살타(Salta)와 후후이(Jujuy)지역 소수의 원주민이 아이마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그러나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스페인어를 습득하여 이미 언어적으로 탈 원주민화 되어버린 도시 이주 원주민과 그의 자손이 자기 판단에 의해 자

22) Cornelio Herrera, "La Identidad Étnica de los Aymarás en Arica," *Revista Chungará*, No 16-17, Chile: Universidad de Tapacá, Arica, 1986, p. 253

23) Edgardo Civallero, *Glosario de Lenguas Indígenas Sudamericanas*, (Córdova: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va, 2007), p. 182

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으로 규정 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 언어를 공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종족집단의 경계와 언어사용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이주 아이마라 원주민은 공간적으로 원주민 공동체에서 벗어나 세계화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전형적인 원주민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마라 종족의 정체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²⁴⁾

종족의 정체성은 단지 기억의 재생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과 타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이마라 원주민으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심리적인 것이며 인간은 통상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정체성을 선택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정체성의 경계 내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²⁵⁾ 결국 아이마라 원주민은 공통의 언어를 기초로 신체적 특징 및 자기 판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중반 원주민 통합정책을 바탕으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토지개혁이 추진되었다. 통합정책은 정부가 원주민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과정이었으며 원주민과 공동체는 일정부분 물질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확산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특히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회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여전히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이러한 상황에서 종족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며,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의 된다. 따라서 원주민의 자기규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마라 종족의 정체성은 식민시대로부터 파생된 불평등한 대립적 사회관계로부터 형성된 개인 혹은 집단적 표현이며 동시에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종족의 정체성은 타

24) 김기현, 「라틴아메리카원주민은 종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3, No.2, 2010, pp. 214-261.

25) Cornelio Herrera, 앞의책, p. 252.

26) 김세건, 「메스띠소와 원주민 사이: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36, No.2, 2003, p. 29.

집단과의 차별을 통한 특수성을 구성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특수성에 기반 하여 집단행동을 규정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 결국 종족의 정체성은 오랜 역사를 통한 문화적 전통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아이마라 종족 갈등의 기원

〈그림 2〉 페루와 볼리비아의 접경지역



출처 : <https://www.google.co.kr/search?.....=mapa+de+aymara&ch&q=mapa+de+puno>

최근 들어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은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종족간의 갈등을 전개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양국에 걸쳐 아이마라 원주민이 밀집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접경지역 인구의 65.3%가 아이마라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루는 26.6%의 원주민이 분포되어 있다.²⁷⁾ 페루의 입장에서 접경지역은 경제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

27) Silvia Marteles,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n la Triple Frontera de Bolivia-Chile-Peru",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Chile: IILA y Ce SPI, 2009, p. 179.

된 지역이며, 이와는 달리 볼리비아의 경우 접경지역은 수도 라 파스와의 지리적 근접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상업에 주력하는 볼리비아 원주민은 도시를 왕래하며 안데스 산맥지역 밀수시장을 통제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여전히 전통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300년 동안의 식민통치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삶과 규범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통적 유산은 일상을 통해 보존되고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언어뿐만 아니라 대지의 어머니 파차마마(Pachamama)에 대한 숭배를 통해 종족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잉카제국 형성 이전 알티플라노지역에서는 로스 코야스(los Collas), 로스 파카헤스(los Pacajes) 그리고 로스 루파카스(los Lupacas)와 같은 아이마라 왕국이 발전하였다. 아이마라 왕국은 우이라코차(Huiracocha)통치 시기 영토를 확장하던 잉카족의 침략에 패하여 결국 잉카제국에 합병되었다. 아이마라어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로스 코야스와 같은 아이마라 왕국은 티티카카호수 주변에 생존하며 종족의 특수성을 지켜 나아갔다. 이후 아이마라족은 알티플라노 지역을 중심으로 1540-1560년 사이 타키 옹케이(Taki-Onqoy)종교-정치 운동을 통해 반식민저항운동을 주도하였다.²⁸⁾

독립이후 페루와 볼리비아 공화국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원주민 공동체 토지소유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주민 공동경작지에 대한 양도불가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원주민의 토지소유권도 소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는 체계적으로 사유화되었다. 독립은 백인 엘리트의 또 다른 전략적 침략이었다. 원주민은 또 다시 투쟁해야 했고 멸종했으며 자신의 토지로부터 추방되었다. 원주민 토지에 대한 양도 자유화 정책은 페루와 볼리비아 양모 산업의 절정기에 추진되었다. 농장주는 양모 생산 증가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농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갔다. 푸노 지역의 농장은 3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였다. 원주민의 저항은 오히려 토지 강탈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⁹⁾ 평등주의 사상에

28) K Doig, F, *History and Art of Ancient Perú*, Volume 6, Perú: 2002, p. 1000.

29) Ramón R. Mendoza, *Legislación Peruana sobre Comunidad Campesinas*, Perú:

입각하여 개정된 신헌법은 원주민의 공동 경작지에 대한 소유권 박탈과 함께 백인 엘리트에 대한 원주민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국가발전 추진과정에서 원주민은 완전히 소외되었으며 식민시대 보호지를 통해 그나마 유지되었던 원주민의 법적 권리마저도 소멸되었다. 1895-1925년 사이 원주민은 보호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1915년 아이마라와 케추아 원주민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저항 운동은 전개되었다. 그 결과 페루 정부는 19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원주민 공동토지에 대한 소유를 재 인정하였다.³⁰⁾

페루와 볼리비아의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아이유 공동체에 기초한 토지 운영을 통해 종족의 동질감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양국 접경지역 일부 지역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은 경작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접국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도 지니고 있다. 접경지역은 양국의 원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종족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분쟁적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독립이후 형성된 국경선은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의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계기로 국경선은 여러 번 변경되었다. 최근 종족간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푸노 주의 산티아고 데 옥시(Santiago de Ojje)마을은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의 국경선 형성과정에서 최초로 분리 대상이 되었던 공동체였다. 1932년 양국이 영토를 직선으로 분할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이 마을 원주민은 가족과 혈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국적을 소유하게 되었다. 양국 정부의 협정에 따라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 반도에 위치했던 산티아고 데 옥시공동체는 페루 영토로 인정되었고, 그동안 페루가 관할하던 타폭시(Tapojje)공동체는 볼리비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³¹⁾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2002, pp. 60-64.

30) ibid

31) Albó Xavier는 앞의 책에서 특별히 Ojje와 Tapojje에 대한 발음기호를 표기하여 각각 Uxi 그리고 Tapuxi로 읽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antiago de Ojje를 산티아고 데 옥시로 그리고 Tapojje를 타폭시로 한글 표기하였다. Albó Xavier, 앞의 책, pp. 165-170.

전쟁과 갈등을 통해 국경선이 형성되고 변경된 이후에도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의 아이마라 원주민은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기반 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다. 볼리비아의 접경지역은 원주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페루에서 접경지역은 가장 소외된 외곽으로서 산티아고 데 욱시 마을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공 서비스 조차 제공되지 않아 마을 주민은 인근 욱구요(Yunguyo)지방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국경지역이 밀수와 범죄자 이동 경로로 이용되자, 1938년 페루 정부의 주도로 국경선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타콕시와 산티아고 데 욱시 마을의 국적도 변경되어 산티아고 데 욱시는 볼리비아의 영토로 복귀되었다.³²⁾

이후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는 산티아고 데 욱시로 부터 유입된 원주민 이주자들이 증가하였다. 도시노동자로 성장한 원주민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새로운 볼리비아 원주민은 의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산티아고 데 욱시 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함께 산티아고 데 욱시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당가입이 활발해 짐에 따라 원주민의 정치활동도 활성화 되었다. 원주민은 정권과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이중적 행동전략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 나아갔다.³³⁾

페루 정부는 원주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페루의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1968~1975) 군사정권은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는 농민공동체로 변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페루와 볼리비아의 원주민은 사회계급의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페루 정부의 개혁은 양국 갈등의 기원이 되었다. 농지개혁에 반대하여 볼리비아 원주민은 페루 영토인 아나피아(Anapia)섬 인근 마을을 점령하여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후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종족갈등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하였다.³⁴⁾

32) *ibid*

33) Albó Xavier, "Aymaras entre Bolivia, Perú y Chile", *Estudios Atacameños*, No. 19,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Arqueológicas y Museo, Chile: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2000, pp. 70-73.

최근 푸노 주에서 등장한 아이마라 종족갈등은 볼리비아 원주민이 페루 영토내의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전개되었다.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선은 새로운 영토 질서 확립과 함께 아이마라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국경선 변경을 통해 분쟁대상 지역의 통제권도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주민의 국적 역시 변경되었다.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 대표 기예르모 아라티아(Guillermo Arratia)는 분쟁해결을 위한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페루 정부는 사태과 악을 위해 카아나 섬(Caana)으로 파견한 정부관료 루보미르 웨르난데스(Liubomir Fernández)의 말을 인용하여 종족 갈등의 책임을 볼리비아 측에 전가했다. 그리고 타국 영토를 대상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76세의 볼리비아 원주민 아라티아는 페루 푸노 주 남쪽에 위치한 용구요 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그는 볼리비아 인으로 살아가지만, 조상과 부모님은 페루 인이었다. 1958년 페루 정부가 발행한 토지소유 증명서를 근거로 용구요 지역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이 비록 볼리비아 인이지만 페루 정부가 인정한 부모님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³⁵⁾

국경선이 형성된 이후 페루와 볼리비아 푸노 주 아이마라 원주민은 서로 자신이 속한 국적아래 경쟁하며 종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접경지역 원주민은 경쟁과 협조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양국의 원주민이 이해관계에서 충돌할 때 서로가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상실했다고 비난한다. 실제 양국의 원주민은 동일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아이마라인으로서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종족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볼리비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대해 페루 측 원주민은 강경한 입장을

34) Françoise Morin, Roberto Santana, *Lo Transnacional: Instrumento y Desafío para los Pueblos Indígenas*, Ecuador: Abya-Yala, 2003, pp. 137-140.

35) La República, 2015 de 19 de julio, <http://larepublica.pe/imprensa/politica/16428-aimaras-de-peru-y-bolivia-en-disputa-por-tierras-en-la-isla-caana-del-lago-titicaca>.

취하며 대응하고 있다. 볼리비아 협상대표 알레한드로 코아키라(Alejandro Coaquira)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경선 형성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로 다른 국적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원주민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페루 응구요 지방의회 의원 구메르신도 로메로(Gumercindo Romero)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2001-2006)정부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산티아고 데 욱시 마을에 대한 볼리비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페루정부는 아직도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³⁶⁾

이와 같이 식민시대 부터 다른 원주민집단에 비해 고유의 언어와 공간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한 동질감을 유지해온 아이마라 원주민은 현재 갈등과 분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은 동일한 역사적 유산을 토대로 국경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02년과 1909년 국경인준협정을 거쳐 1925년 양국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국경선 형성을 통해 아이마라 원주민의 영토는 분리되었고, 이것은 원주민 종족내부 갈등의 기원이 되었다.

국경선 형성 이후에도 원주민은 양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페루 정부가 국경지역에서 불법체류 및 밀수와 범죄활동이 증가하자 국경지역 통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볼리비아 원주민의 통과도 통제되었으며, 접경지역 토지에 대한 경제활동도 제한되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의 종족갈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전개되었다. 아이마라 종족내부 갈등은 언제든지 양국의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분권화는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군사독재 체제의 종언과 함께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탈중앙화를 통해 국가 행정력 강화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경쟁은 강화 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는 재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

36) Ibid

방정부는 유럽의 통합모델을 기초로 국경지역 협력 강화정책을 구상하였다.

볼리비아에서는 1994년부터 분권화가 추진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볼리비아의 탈중앙화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볼리비아의 분권화는 라 파스, 오우로 그리고 포토시(Potosí)를 중심으로 안데스 서쪽지역과 산타 크루스(Santa Cruz), 타리하(Tarija), 베니(Beni)와 판도(Pando)주 중심의 동쪽지역 그리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지역에서 급진전 되었다. 2004년 모랄레스 정권(Evo Morales:2004-현재)의 등장과 함께 탈중앙화 정책에 관한 논의는 원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9년 1월 25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는 볼리비아를 다민족국가(Estado Plurinacional)로 선언하고 지방행정체제 재편과 함께 원주민의 태생 영토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중앙정부는 역사적 상호관계를 고려하고 지방의 자치 구조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행정체제를 정비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이었다. 정부는 농촌지역 아이유 원주민 공동토지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볼리비아의 분권화는 아이마라 원주민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원주민 인구가 구성된 새로운 주도 형성되었다. 마을단위 공동체는 지방 행정조직의 토대가 되었으며, 아이마라 공동체는 기초행정조직을 통해 연결되었다.³⁷⁾

페루의 탈중앙화는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알란가르시아(Alan García: 1985-1990)정권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992년 4월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o Fujimori: 1990-2000)가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개혁은 중단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이후 알레한드로 툴레도에 의해 분권화 정책은 재추진되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25개 지방정부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분권화는 광산지역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진전되지 않았다. 탈 중앙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주민 종족의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37) Moira Zuazo, et, al, *Descentralizacion y Democratizacion en Bolivia, La historia del Estado Debil, la Sociedad Rebelde y el Anhelos de Democracia*, Impreso en Impresion Digital, 2012, pp. 45-44.

분권화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치하기 위한 원주민 공동체간의 경쟁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원주민 공동체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³⁸⁾

1990년대 말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정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하였다. 국경지역을 개방하고 공용어로서 아이마라어를 바탕으로 국경을 하나의 종족 통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각국 정부는 삼국 접경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La Alianza Estratégica Aymaras sin Fronteras)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통합이 추진되었다. 볼리비아 서쪽 접경지역의 25개 중소도시, 페루 남쪽의 14개 도시 그리고 칠레 북쪽 아리카주의 중소 도시들을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 통합에 대한 구상은 구체화되었다.³⁹⁾

삼국의 접경지역은 혁신적인 정치의 시험무대가 되었다. 2009년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페루의 탁나와 푸노, 볼리비아의 라 파스, 오우로, 포토시 그리고 칠레의 아리카와, 파리나코타(Parinacota) 및 타라파카(Tarapacá)주를 중심으로 원주민 통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과 다른 의미의 종족주의가 등장하였다. 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페루와 볼리비아의 접경지역 푸노 주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종족내부 분쟁이 전개되었다. 새로운 헌법을 통해 도입된 분권화 정책은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오히려 약화시키려는 결과를 초래했다.

탈중앙화는 현실정치 속에서 경제적으로 철저한 분배의 원칙으로 받아들

38) Tapia, J.,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1, Iquique de Chile: Universidad Arturo Prat, 2003, pp. 25-47.

39) González Miranda, De "Aymaras en la Frontera a Aymaras sin Frontera.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 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Diálogo Andino-Revista de Historia, Geografía y Cultura Andina*, (Chile: Universidad de Tarapacá, 2008), p. 38.

여졌고 아이마라 원주민의 종족정체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분권화는 공평한 권리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원주민 종족내부에서도 자신이 다른 아이마라 집단과 구분되는 고유한 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가져야할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위의 다른 원주민 집단과는 문화와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집단 간 경계를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동일 종족간의 분쟁은 발생하고 있다.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고 단결하지만 자신들 내부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각기 다른 공화국의 정치공동체에 속해있으면서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아이마라 원주민은 정부의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강화시키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V. 결론

국민국가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형성된 이후에도 접경지역은 공동의 문화 공간위에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에 걸쳐 밀집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 역시 각각 국가의 소속을 달리하지만 하나의 삶의 터전 속에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공동의 정체성을 지향해 왔다. 종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종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아이마라 원주민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며 단결하지만 동시에 내부 갈등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대립하였다.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 푸노 주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공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19세기 독립 과정에서 단일 국가 건설에 실패한 지역 엘리트들은 대립관계를 형성하였고, 지역엘리트들의 갈

등과 전쟁은 국경형성과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은 정치적 결과물인 인위적 영토 경계선을 통해 분리되었다. 그러나 공간적 분리는 원주민의 삶과 규범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고유의 언어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아이유 공동체가 유지되는 전통의 일상을 통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식민시대부터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체성은 같은 공간의 케추아 원주민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강화되었다. 국경으로 분리된 이후 원주민은 협조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종족의 정체성은 정치와 경제적 목적을 위한 권리주장 도구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양국의 원주민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서로가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가하며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종족간의 갈등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타 종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페루와 볼리비아의 경우 국경선이 형성된 이후 공간적 분리를 통해 발생하는 종족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체성은 오랜 역사를 통한 문화적 전통에서 형성되었지만 현실의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경과 인접한 경우 또한 원주민이 국경을 인접한 양국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민족통일로 인한 국가분열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삼국이 접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정부는 국경지역을 개방하고 아이마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국경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정부는 탈 중앙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는 현실정치 속에서 경제적으로 철저한 분배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졌고 원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합법적인 권리 주장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같은 종족 내에서도 구분되는 고유한 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며 갈등하였다.

❖ 참고 문헌

- 김기현, 「라틴아메리카원주민은 종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2, 2010.
- _____,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 2005.
- 김세건, 「메스피소와 원주민 사이: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36, No.2, 2003
- 김승렬외,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 역사재단, 2008.
- 차경미, 「그란 콜롬비아지역의 국경과 영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국경선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코기토』, 2011.
- _____, 「라틴아메리카의 지방사: 아바나(Habana)와 카르타헤나(Cartagena)식민도시의 기능」, 『건지인문학』, 제10집, 2013.
- Agulier Javier Rojas, *Fundación de Ciudades Hispanoamericanas*, Madrid: Mapfre, 1994.
- Albó Xavier, "Aymaras entre Bolivia, Perú y Chile", *Estudios Atacameños*, No. 19,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Arqueológicas y Museo, Chile: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2000.
- _____, *Pueblos Indígenas en la Política*, Bolivia: CIPCA, 2002.
- Civallero Edgardo, *Glosario de Lenguas Indígenas Sudamericanas*, Córdoba: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2007.
- Droguett Fernández, "Etnicidad Y Ciudadanía Indígena, Las Formas de Acción Colectiva Aymara en Argentina, Bolivia, Chile y Perú", *Si Somos Americanos: Revista de Estudios Tranfronterizos*, Vol.IX, No. 2, Chile: Universidad Arturo Prat, 2009.
- Doig, F. K, *History and Art of Ancient Perú*, Volume 6, Perú, 2002.
- Edgar Dick I. Grassó, *América en la Prehistoria Mundial*, BPR Publisher, 1982.
- Elsenberg Amy, *Aymara Indian Perspectives en Development in the Andes*, U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3.
- Morin Françoise, Santana Roberto, *Lo Transnacional: Instrumento y Desafío para los Pueblos Indígenas*, Ecuador: Abya-Yala, 2003.
- Herrera Cornelio Chipana, "La Identidad Étnica de los Aymarás en Arica", *Revista Chungará*, No 16-17, Chile: Universidad de Tapacá, Arica, 1986.

- Hopenhayan y Bello, *Discriminación Etnico-Racial y Xenofobia en América Latina y Caribe. Serie Políticas y Social, No 47*, Santiago: CEPAL,2005.
- Jiménez Borja, *Mascara Peruana*, Fundación del Banco Continental para Fomento de la Educación y la Cultura, 1996.
- Marteles Silvia Moren,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n la Triple Frontera de Bolivia-Chile-Peru",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Chile:IILA y Ce SPI, 2009.
- Mendoza Ramón Robles, *Legislación Peruana sobre Comunidad Campesinas*, Perú: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2002.
- Miranda Sergio González, De "Aymaras en la Frontera a Aymaras sin Frontera.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Diálogo Andino-Revista de Historia, Geografía y Cultura Andina*, Chile: Universidad de Tarapacá, 2008.
- Pellizzi Francesco, "Misioneros y Cargos", *América Indígena*, No 1. III. Vol XIII, México, 1982.
- Pascharopoulos & Patrinos, *Indigenous People and Poverty in Latinamerica*, :Bookfile Avebury, 1996.
- Tapia, J,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1, Iquique de Chile: Universidad Arturo Prat, 2003.
- Tovar Maria Rostworowski, *La Historia de los Incas*, Perú: Editora El Comercio S.A. Producciones Cantabria S.A.C, 2010.
- Vilas, Carlos, "Lynchings and Political Conflict in the Andes", *E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No.35, 2008.
- Zapata Claudia Silva et., al, *Intelectuales Indígenas, Piensan América Latina*, Ecuador: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2007.
- Zapata Clara Tarrés, *Las Voces del Desierto: Identidad Aymara en el Norte de Chile*, Chile: Dirección de Bibliotecas Archivos y Museos, 2001.
- Zuazo Moira,et.,al, *Descentralizacion y Democratizacion en Bolivia, La historia del Estado Debil, la Sociedad Rebelde y el Anhelo de Democracia: Impreso en Impresion Digital*, 2012.
- La República. 2015. 19 de julio.
<http://larepublica.pe/impresia/politica/16428-aimaras-de-peru-y-bolivia-en-disputa>

-por-tierras-en-la-isla-caana-del-lago-titicaca.

El Comercio

<http://elcomercio.pe/peru/puno/asesinos-alcalde-ilave-pasaran-30-anos-prision-noticia-1706455>.

Eland Vera, "Puno: Antimineros: Enseñanzas de Un Conflicto", 2011 de 30 de mayo, *Comunicación intercultural para un mundo más humano y diverso*, <http://servindi.org/actualidad/45679>

<https://www.google.co.kr/search?q=mapa+de+aymara&newwindow=.....od4UMMhw>

<https://www.google.co.kr/search?q=mapa+...KbDm8kCFYXGpgod4UMMhw>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557&cid=40942&categoryId=31611>

<http://historiadorbolrfq.blogspot.kr/2011/05/conflictos-sociales-en-la-frontera.html>

❖ ABSTRACT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flict of the Aymara of Peru and Bolivia, Centered on Puno

Cha, Kyung-Mi

In the Andes regions of Latin America continents, groups of diverse native tribes are intensively distributed. Among these tribes, the Aymara compose the most representative group of natives along with the Quechua. Especially, the Aymara who are concentrated on the border areas of Peru and Bolivia centered on Lake Titicaca have pursued common identity forming the same cultural area although they belong to different nations. In the meantime, the Aymara have maintained a sense of fellowship while emphasizing historicity and specialty, which are differentiated with groups of other natives based on a language constituting identity of the tribe. However, recently, focused on Puno State as the center of the border areas of both countries, the tribe's conflicts come to the surface.

After being divided by the artificial boundary line, which was formed in the course of building modern countries after the independence, natives of Latin America started to emphasize differences simultaneously with cultural similarity in the fram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ogether with the historical contexts, lately, focused on the border areas of Peru and Bolivia, as the same tribe came to be bound by the frameworks of different nations respectively, a new tribal conflict is being developed. Though the Aymara unite emphasizing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alty and recognizing them as one tribe, when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inner interest, a tendency to form the identity of differentiation and distinction appeared even in the inside of the tribe.

Usually, disorder between tribes seems to be originated from intertribal strife, which coexists in one region. In case of the Aymara of Peru and Bolivia, centered on Puno State where both countries maintain the border, an aspect that the fellowship of the tribe,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old history changes into conflict structures by realistic conditions comes out. In understanding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flict of the Aymara and the deepened cause of

the tribal disorder.

Key Words

the Aymara, the border areas, historical specialty, tribal identity, origin of the conflict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